

목포시, 미래 선박연료 패러다임 전환 이끈다

목포시가 국내 최대 규모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실증 센터 구축에 나서며 미래 친환경 선박연료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15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대양산단 일원에서 지자체, 의회, 대학, 유관기관, 조선·기자재 기업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암모니아 선박 연료 공급 실증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남도, 목포시가 주최하고 (재)한국조선해양 기자재연구원 등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차세대 선박연료인 암모니아 연료의 연구와 실증을 전담하는 국내 최대 규모 인프라 구축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목포시와 전남도,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목포상공회의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HD현대사호

대양산단 내 '친환경 암모니아 연료공급 실증센터' 착공 무탄소 친환경선박 핵심기술 개발·상용화 중심도시 도약

등 관계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증센터 조성을 축하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

실증센터는 산업부의 '친환경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장치·시스템 실증기반 구축사업(2024~2028년, 200억원)'의 일환으로 조성돼 친환경 선박 기술 실증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7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센터가 구축되면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 수주 증가 추세에 발맞춰 각종 부품·기

성되며, 미래 친환경선박 시스템 기술을 선도하고 관련 산업의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한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암모니아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무탄소 연료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와 Post-LNG 시대에 대응할 차세대 선박연료로 주목받고 있어 글로벌 조선·해운업계도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시는 이번 실증센터 구축을 통해 친환경선박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지역 기



목포시는 최근 대양산단 일원에서 지자체, 의회, 대학, 유관기관, 조선·기자재 기업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암모니아 선박 연료공급 실증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사진제공=목포시

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경제의 근간인 조선산업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실증 인프라를 기반으로 관련기업

유치와 연구개발 협력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지역 조선·기자재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착공식은 목포시가 친환경선박 연료 전환시대를 선도하는 실증거점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친환경 해양산업 중심도시로의 전환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남양에 전기추진 중심의 친환경선박 연구지원 인프라의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차세대조선TF 기동을 통해 목포시의 중장기 미래먹거리 발굴에도 매진하고 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해남군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교육을 운영한다. 사진제공=해남군

해남,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개강

수준별 4개 반 운영...지역사회 소통 '첫걸음'

해남군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교육을 운영한다.

한국어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주 2회 운영되며, 교육생의 한국어 능력 수준을 고려해 심화반·중급반·고급반·취업대비반 등 4개 반으로 구성해 단계별 교육을 실시한다.

군은 결혼이민자의 언어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교육이 연중 운영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4년부터 준비를 추가 편성해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행복장려금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정 자녀 분유구입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해남군 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

와 가족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한국어교육 개강식도 개최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한국어교육은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어교육을 비롯해 가족센터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가족센터(061-534-0017) 또는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남=성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진도, 8774억 규모 대형 개발사업 '박차'

주요 추진상황 점검...문제점 등 대응 방안 마련

진도군이 지역 핵심 개발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점검에 들어갔다.

15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질 주요개발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최근 5억원 이상의 주요개발사업 101건(총사업비 8774억원)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주요 현안사업의 공정률과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

고, 부진과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사업은 해안일주도로 개설사업(2074억원), 해상·염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815억원), 어촌신활력 증진사업(800억원), 전남형 균형발전 300 '진경-진도산해도경 프로젝트'(300억원),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사업(180억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35억원), 지역맞춤형 수산종

자 실용화센터 건립(91억원) 등 지역 기반 확충, 정주여건 개선, 관광 활성화, 재해예방을 아우르는 대규모 사업들이다.

군은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사업별 공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절차 이행 여부를 재점검하는 한편, 인허가와 보상, 공정 지연 요인 등을 분석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과 재해예방 사업은 안전관리 대책을 병행 추진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

영암쌀, 전국 '일품양평해장국' 매장서 만난다

군, 외식 프랜차이즈(주)우분트월드와 업무협약

영암군은 최근 군청에서 '일품양평해장국' 외식 프랜차이즈(주)우분트월드와 영암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 브랜드 이미지와 지역의 신선한 농특산물 공급을 결합해 기업과 농가가 상생하는 '로코노미(Loconomy : Local+Economy) 합성

어' 차원에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영암군은 기업에 영암쌀 등 농특산물의 공급과 영암 캐릭터 활용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 우분트월드는 전국 500개 일품양평해장국 매장에서 영암산 새창 무쌀 등으로 만든 음식을 판매한다.

영암군은 이번 협약이 연간 약 500t의 영암쌀 공급, 13억8000만원 상당의 매출

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군의 영암쌀 첫 공급량은 약 8t 규모로 시작된다.

이번 협약 이외에도 영암군은 지난해 ㈜양평김밥과 협약을 맺고 318t의 영암쌀 공급에 나서는 등 로코노미 정책을 이어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번 협약이 영암쌀의 전국 판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로코노미 정책으로 영암 농특산물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人

구독문의:062)370-7080 2026.03 vol. 154
광고문의:062)370-7070

커버스토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달의 CEO

서형호
휴바스코리아 대표

화제의 인물

남영숙
대한민국 화워 명장

남도예술인

정성우
씨네로드 대표